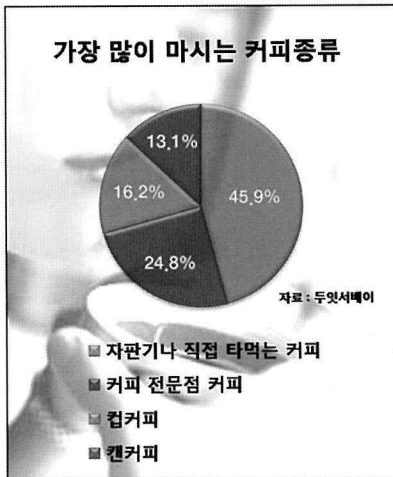




한 집 걸러 커피숍인 시대 그래도 자판기 커피를 주로 마신다

커피자판기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믹스커피, 원두커피 시장 등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커피 자판기의 매출이 과거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분명한 점은 서민은 여전히 자판기 커피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 고급커피 시장의 이면에는 항상 저가 커피에 대한 니즈도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세베이 결과를 소개한다.

〈설문결과 제공 : 두잇서베이〉



그래도 가격이 싼 커피가 좋아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1만2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권에만 대형 커피전문점이 4~5개씩 옹기종기 모여 있어 '한 집 걸러 커피숍'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지만 정작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커피는 자판기 커피나 직접 타 마시는 봉지커피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서치기업 두잇서베이는 지난 5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인터넷 사용자 2103명을 대상으로 '커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5.5%가 '하루에 커피 한두잔을 마신다'고 답했다. 특히 10명 중 3명꼴인 31.1%는 '한 잔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45.9%가 '주로 먹는 커피는 자판기 커피나 직접 타

서 먹는 커피'라고 답해 커피전문점 1만개 시대인 현 상황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가장 선호하는 커피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는 스타벅스(26.2%), 엔제리너스(21.5%), 탐앤탐스(9.2%), 커피빈(8.5%) 순으로 조사됐다.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커피 맛'(47.6%)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맛에 이어 '매장 분위기'(19.6%), '가격'(11.1%) 등이 선호 이유로 나타났다.

한편 커피 전문점 커피 값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8.5%가 "비싸다"고 대답해 현재 가격 수준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커피 한잔의 양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적당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싸고도 맛있는 자판기 커피는 소비자에게 먹힌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커피시장은 원두를 필두로 하는 고급커피 시장과 자판기커피, 봉지 커피 등의 저가 커피시장이 명확히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기본적인 소비자 니즈는 분위기 좋은 커피전문점에서 맛있는 원두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서민이 항상 이런 분위기를 즐길 수 없다. 그러기에는 원두커피 가격이 너무 비싸다.

반면 중독성이 강한 커피는 애호가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마시고 싶어 한다. '설문대상자의 45.5%가 하루 1-2잔을 마신다'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커피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서민들이 자주 즐기는 커피는 저가형 커피이다. 이런 점에서 자판기 커피, 봉지커피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판기 커피하면 싼 커피'라는 인식이 나쁜 점만은 아니다. 오히려 비싼 원두커피 전문점들이 늘어날수록 자판기의 장점들이 부각되기도 한다. '싼 커피이지만 마실만하다'는 가치를 충족시키면 고객은 자판기 결을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싸다는 가치에만 계속 안주하고 있으면 안된다. 갈수록 높아지는 커피에 대한 소비자 입맛도 따라 갈 수 있도록 자판기 커피 맛도 향상시켜야 한다. 자판기 커피가 싸면서도 맛까지 점점 좋아진다면 고객은 오히려 늘어 날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판기 커피의 희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일부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커피자판기가 다시 불끈 힘을 내야 할 시점이다.